

삼조승찬의 신심명(信心銘) 강의 다섯 번째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3대 조사인 승찬(僧璨; ?-606)의 작품이다. 신심(信心)은 곧 믿는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이 마음이 둘이 아님을 밝힌 것이 신심명이다.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취하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은 곧 대승불교의 요점이고, 선(禪)의 가르침이다. 신심명은 선종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시(禪詩)로서 초기부터 널리 읽히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연재하는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의 신심명 강의는 지리산에서 2007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행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열개의 얼음덩이가 지금 그대로 물이다

| 김태완 무심선원장 |

“선이란 도대체 뭘니까?”

“다만 이것입니다.”

“이것이 뭘니까?”

“저녁이 되니 시원합니다. 저녁을 먹어 배가 불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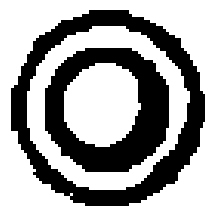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 . . . ”

지금 당신은 어리둥절한 그 마음에 묶여있나요?

(편집자 주).



◎ 심심명 계송 28

欲知兩段 (욕지양단)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元是一空 (원시일공)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이다.” 두 끝이란 쉽게 말하면, 주관과 객관, 있음과 없음, 옳음과 그름, 이것과 저것 등과 같이 분별된 개념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계와 시계 아닌 것, 마이크와 마이크 아닌 것처럼 모든 분별한 개념과 이름이 두 끝입니다. 이렇게 분별한 모든 개념과 이름이 원래 하나의 공(空)인 겁니다. 그런데 공(空)이라는 것도 역시 분별한 개념이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두 끝이 원래 하나의 공(空)임을 밝히고자 한다면, 어떤 개념이나 이름에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도(道)에 통달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도 막히지도 않는 겁니다. 해탈자재니 원융무애니 하는 등의 말이 머물 없고 막힘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지금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라고 말할 때에 ‘두 끝’, ‘알고자 한다’, ‘원래’, ‘하나’, ‘공(空)’ 등의 개념들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끝을 알고자 하는

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머뭇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짐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단어는 달라지고 개념은 달라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짐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이 부분 없는 전체요,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는 하나입니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을 다 이해하면서도,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이 하나뿐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완전하다고 할까요? 다만 이럴 뿐(손을 들어올리며)이라 할까요? 늘 전체로서 앞도 뒤도 아래도 위도 없다고 할까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일 뿐입니다.

흔히 충만하다고 말하죠.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그릇과 물이 하나가 되어 물도 없고 그릇도 없는 것이죠. 바로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가 충만입니다. 물이 모자라도 그릇과 물이 따로 있고, 물이 넘쳐도 그릇과 물이 따로 있습니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空)이다”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습니다. 충만, 둘 없는 하나 등의 말로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둘이 없다고 하듯이, 여기(손을 흔들며)에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

을 할 경우에도 다만 늘 한결같이 다름이 없으니, 갈등과 번뇌가 생기지 않습니다. 슬픈 광경을 보면 슬퍼하고, 기쁜 광경을 보면 기뻐하고, 눈살 찌푸릴 광경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놀랄 수도 있고, 성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매순간이 다만 이것(손을 흔들며)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투명한 수정구슬에 비춰지는 영상처럼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결국 이런저런 차별이 없어요. 언제나 다만 이(손을 흔들며) 뿐입니다.

“두 끝을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의 공이다.” 여기서 공(空)이라는 이름은 ‘텅 비었다’는 뜻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공이란 말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도(中道)를 가리킵니다. 중도는 분별이면서도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緣起)라고도 합니다. 분별이면서도 분별이 아닌 중도(中道)를 공이라 합니다. 즉, 모든 분별은 곧 중도요, 공입니다. 분별은 상(相; 모습)으로 표현되므로, 모든 상이 곧 공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色)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 할 경우의 공(空)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법은 공인 모습이니,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고 하잖아요? 분별로는 생겨남과 없어짐, 늘어나고 줄어듦,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습니다만, 분별은 곧 공(空)인 중도이니 또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과학의 원리를 빌려 《반야심경》을 설명하길,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마침내 파동인지 입자인지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물질이 결국 공(空)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공이 곧 중도

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분별이 곧 분별이 아니고, 개념이 곧 개념이 아니고, 상(相)이 곧 상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니 과학의 이론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 이론은 전부 개념 위에서 성립되므로, 개념이 곧 개념이 아닌 공임을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색이란 개념을 세우면, 이미 두 끝에 떨어져 있는 것이니, 원래 하나의 공은 아니지요. 상대적인 개념을 세워서 그 개념의 관계를 말하면 그건 전부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니, 개념이 곧 개념이 아닌 공(空)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신심명 계송 29

一空同兩 (일공동양) 하나의 공이 두 끝과 같으니,

齊含萬象 (제함만상) 삼라만상을 모두 다 머금는다.

“하나의 공이 두 끝과 같으니, 삼라만상을 모두 다 머금는다.” 이 말은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다.”라는 일즉일체(一卽一切)요, 일체즉일(一切卽一)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일(一) 대신 공(空)이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一)은 분별할 수 없음이니 곧 공(空)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만법귀일(萬法歸一)도 같은 뜻입니다. “만법이 곧 하나이다.” 혹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이 말은 허망한 만법이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리는 이해가 되며, 하나 혹은 공

에 치우친 외도(外道)의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열 개의 얼음덩이를 하나의 그릇에 넣어서 녹이니 다만 한 그릇의 물이 되더라는 식의 뜻이 아닙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열 개의 얼음덩이 각각이 지금 있는 그대로 모두 물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얼음의 참된 모습을 바로 보니 제각각 있는 얼음이 본래 하나의 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얼음을 본다면 하나하나 분별되는 제각각의 덩어리지만, 물을 본다면 모든 얼음 그대로가 물이지 얼음을 떠나 따로 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 개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열 개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열 개처럼 분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온 우주를 품고서 없는 것이 없으므로 공(空)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버리고 차별 없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별하는 여기에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도가 됩니까?” “저녁이 되니 시원합니다.” 차별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도가 됩니까?” “저녁이 되니 시원합니다.” 한결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가 됩니까?” “이것(탁자를 두드리며)입니다.” “마음이 됩니까?” “이것(손을 들어올리며)입니다.” “부처가 됩니까?” “지금 8시 20분입니다.” “선이 됩니까?” “이것은 (죽비를 들어올리며) 죽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통하면, 아무리 헤아리고 분별해도 한결같이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냐고요? “이것이 (죽비를 들어올리며) 죽비입니다.” 정말 짹짹합니까? 이렇게(탁자를 두드리며) 분명한데 무엇이 짹짹합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단지 저녁을 먹고 나니 배가 부르고 잠이 올 뿐입니다. 안다고 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 형광펜에 잉크가 없군요.” 도대체 뭐냐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탁자를

두드리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탁자를 두드리며)이죠. 저녁이 되니 시원합니다. 저녁밥을 먹어서 배가 불리요.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등이 가려워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손발이 저립니다. 불빛이 밝군요.

예컨대 1 더하기 1은 뭐냐 하고 묻는 것은 선(禪)의 질문은 아닙니다. 도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뭐냐 하고 묻으면, 2 혹은 3이라는 정해진 답을 원하잖아요? 옳을 수 있고 그를 수 있는 그런 답을 원하면 선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저녁밥을 먹고 배가 부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습니까? 이것(탁자를 치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습니까? 등이 가려운데 무엇이 옳고 그르겠습니까? 저녁이 되니 시원한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여기(손을 흔들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이것이 (형광펜을 들어올리며) 분명하면 온 우주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형광펜을 들어올리며) 분명하면 온 우주가 막힘없어 명백합니다.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순간순간 언제나 이뿐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이것은 다만 이것(손을 들어올리며)이지, 어떤 구조도 모습도 위치도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이겁니다(죽비를 들어올리며). 이것이죠(탁자를 두드리며). 밤이 깊어갑니다. 나방이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9시가 다 되었군요. 도대체 뭐냐? (잠깐 침묵). 도대체 뭐냐? (손을 흔든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 신심명 계송 30

不見精麤 (불견정추) 세밀함과 거칠음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寧有偏黨 (영유편당)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세밀함과 거칠음, 역시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컵과 컵 아닌 것을 나누는 것과 같죠.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누는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습니까? 신심명(信心銘)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가려서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이래로 지금까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 나눔에서 문제가 생기니 둘로 나누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하지 않는다면 도 대체 뭐냐? “분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냐?” 이뿐이죠. 다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이 있거나 무엇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 어떻다는 생각을 덧붙이지 마세요.

보통 공부한다면 무엇을 주시하라고 하는데, 주시하라고 한다면 벌써 어긋난 것입니다. 저기 개골개골 하는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선풍기 소리,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나는 것 모두가 다만 이뿐입니다. 세상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속처럼 온갖 것들이 나타나는데, 꿈과 꿈 아님이 따로 없습니다. 꿈속의 일 하나하나가 그대로 유일한 진실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맑은 날 햇볕 속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모습들은 전부 빛일 뿐입니다. 삼라만상의 모습이 곧 빛이요, 빛이 곧 삼라만상의 모습으로서, 빛 밖에 따로 삼라만상의 모습이 없고 삼라만상의 모습 밖에 따로

빛이 없습니다.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면 빛을 보는 것이고, 빛을 보면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니 빛이니 하고 이름으로 분리하지만, 따로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탁자를 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으로는 탁자가 있고 죽비가 있고 마음이 있지만, 탁자가 곧 죽비요, 죽비가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탁자입니다.

◎ 신심명 계송 31

大道體寬 (대도체관) 대도는 바탕이 드넓어서,
無易無難 (무이무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쉽다, 어렵다 이것도 분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여기에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손가락을 흔들며)이죠. 말로서 설명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아! 바라보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분별하고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듣고 있는 것이다.” “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는 것도 아닙니다. 대도(大道)에는 틀리다, 맞다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대도는 바탕이 드넓다 하는데, 대도가 뭘니까? “8시 30분입니다.” “배가 부릅니다.” “무덤습니다.”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하늘에 별이 빼곡합니다.” 이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

각하든, 무엇을 느끼든, 다만 이뿐입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는 바탕이 드넓다고 하지만, 좁고 넓은의 차이도 없습니다. 맞음과 틀림도 없습니다. “8시 30분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뜰 앞에 서 있는 대나무입니다.” “개구리가 개골개골 우는군요.” 이뿐입니다.

유식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성유식론(成唯識論)》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윤회의 삶을 계속하게 하는 번뇌장(煩惱障)을 소멸함으로써 참다운 해탈(解脫)을 증득(證得)한다. 지혜를 막는 소지장(所知障)을 소멸함으로써 대보리(大菩提)를 얻는다.” 대보리, 즉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려면 소지장(所知障)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지장이 뭐니까? 아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곧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지장이 소멸한다는 것은 곧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장이 소멸한 해탈은 고통스런 번뇌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해탈, 즉 자유가 있는 것이고, 소지장이 소멸한 깨달음은 둘로 나누는 분별이라는 장애에서 벗어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막힘이 없는 밝음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경우에 둘로 나누어짐이 없이 한결같고 털끝만큼의 틈도 없어서 흔들림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지장이 소멸한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하는 가운데 분별이 없고,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좀 더 적합한 말입니다. “8시 30분입니다.” 생각이요, 분별입니다. “8시 30분입니다.”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해가 지니 시원합니다.” 생각이요, 분별입니다. “해가 지니 시원합니다.”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내려놓아라.” 생각이요, 분별입니다. “내려놓아라.”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생각이

요, 분별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습관이에요, 뿌리 깊은 버릇입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에 함께 모여 불경과 선어록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어록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물소리가 법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물소리를 듣는 것이 자기 마음이니까, 결국 물소리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소리가 법을 말한다고 한다.” 모두들 이 풀이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일 거야! 하고 나름으로 수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오직 물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물소리가 곧 마음이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오직 듣는 마음이 있을 뿐, 물소리가 따로 없다.”

자, 누구의 말이 좀 더 그럴듯합니까? 누구의 말이 좀 더 알맞은 말입니까? 언뜻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말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분별하면 이 말이 좀 더 가깝고 저 말이 좀 더 먼 것처럼 이해될 것입니다.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말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분별에 머물면 모두가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도 아무런 분별이 없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졸졸졸!” “졸졸졸!” 이뿐입니다. 마음이 있고 물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이뿐입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소리도 아닙니다. “줄줄줄!” 이뿐입니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중간도 아닙니다. “줄줄줄!” 이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물소리가 법을 말하고, 하늘에 있는 구름이 법을 말하고, 귀뚜라미가 법을 말하고, 바람이 법을 말하고, 태양이 법을 말하여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법을 말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법을 말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법을 말하고, 일어나는 생각이 법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깨달음이라는 경전의 말이나, 온 우주에 있는 티끌 먼지 속에 전부 부처님이 계셔서 법을 말한다는 경전의 말이나, 모든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먼지들이 있는데 그 먼지 하나하나 속에는 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경전의 말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심명 계송 32

小見狐疑 (소견호의)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의심하면,
轉急轉遲 (전급전지)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곧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의심이라는 것은 곧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 개입되면 아무리 서둘러도 오히려 더 늦어진다. 마치 움직일수록 더욱 죄어오는 오랏줄처럼, 생각할수록 더욱 생각의 테두리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에서 풀려나 늦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가 의심에서 풀려나는 자리이고,

어디가 늦어지지 않는 자리이나? 말하자면,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의심하면,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의심 없는 곳이고, 어디가 빠르고 늦음이 없는 곳이나는 말이죠. 어디일까요?

바로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의심하면,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의심 없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빠르고 늦음이 없는 곳입니다.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의심하면, 서둘수록 더욱 늦어진다.” 여기가 바로 의심 없는 곳이고, 빠르고 늦음이 없는 곳입니다.

예컨대 “부처가 뭐니까?” 하고 물으니, 중국의 운문 스님은 “똥 닮은 막대기다.”라고 답했습니다. 선사(禪師)들은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렵거나 쉬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심오한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부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뜻을 가지고 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이다.” 혹은 “차를 마시게나.” 혹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혹은 “삼베가 서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는 이해해야 할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만 대도(大道)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대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여 드러낼 수 있을 뿐입니다. 불립문자(不立文字)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도를 나타내는 말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방에 들어가 주인에게 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진열해 놓은 금으로 만든 반지, 비녀, 팔찌, 귀걸이 등을 가리킵니다. 만약 방문한 사람이 “금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왜 반지, 비녀, 팔찌, 귀걸이를 보여줍니까? 금을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비유를 들겠습

니다. 모래를 가르쳐주려는 사람이 모래 위에다 글씨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이다.” “모래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래 가루는 쉽게 흘러서 뭉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모래 위에 쓴 글자만 보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달리 모래를 가르쳐줄 묘안이 있습니까?

말을 하면 자꾸만 말의 뜻을 따라가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군요. (손을 들어올리며) 이것입니다. (죽비를 두드리며) 이것입니다. (책상을 두드리며) 이것입니다.

(손을 흔들며) 이것이 일단 확인되면, 지금 저기 짹짹 하는 귀뚜라미 소리가 우주의 음악입니다. 온 우주를 뒤덮는 소리입니다.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전체란 말이죠. 대도는 바탕이 드넓어 테두리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작다고 하면 가장 작은 소립자 속에도 들어가고, 크다고 하면 가장 큰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정확히 딱딱 들어맞아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항상 꽂어짐이 없습니다. 바로 가리키면 (손을 들어올리며) 이것입니다. 도에는 빈 자리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정확히 딱 들어맞죠. “날씨가 맑군요.” 딱 들어맞아 빈 자리가 없죠? (죽비를 친다) 전혀 틀어 없죠? “이제 슬슬 배가 고픈다.” 아무런 어긋남이 없죠?

하나 지적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는 내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변화에 우리가 아주 쉽게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느낌에 의지하여 살아온 습관 때문에 심리적인 느낌에 얽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보고, 듣고, 부딪히는 경험과 다를 바 없는 허망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내면의 느낌에 매여

서 연연하면 안돼요.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쾌청한 날씨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두컴컴하게 흐린 날씨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퍼붓는 듯이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만약 쾌청한 것을 좋아하고 흐린 것을 싫어하면, 이 변화무쌍한 물결 같은 마음의 변덕에 휩쓸려 떠다니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기분 속에 있거나 행복한 느낌 속에 있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 되면 안됩니다.

깨달음이란, 다만 이(손을 들어올리며) 대도(大道)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대도에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분열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좋거나 나쁜 기분은 헛되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경계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경계에서 해탈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공부의 효험입니다.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든, 기분이 어떻게 변하든, 밖으로 무엇을 보든, 다만 한결같이 이 도(道)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가르침을 듣는 것이 바른 공부입니다.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기분이나 밖으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스쳐지나가는 풍경들일 뿐입니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나 성인의 올바른 가르침은 전부 이(손을 들어올리며) 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팎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려고 등산하는 사람이 꾸준히 정상을 향하여 올라야만 하는 것이지, 오르면서 보는 주변의 광경에 홀려서 멈추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이(손을 들어올리며) 도(道)에만 관심이 있다면, 평소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외부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걸림 없이 스쳐지나갑니다. 말하자면, 대도에 관심을 두면 저절로 사소한

일상적인 경험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세속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세속에 살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으면 다스리고, 헤아릴 수 있으면 헤아리되, 그런 지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붙잡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세속의 일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때가 옵니다. 시간에 따라 흘러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이(손을 들어올리며) 하나의 대도에 온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심명 계송 33

執之失度 (집지실도)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서,
必入邪路 (필입사로) 반드시 샛된 길로 들어간다.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매달려 손을 놓지 못한다, 혹은 어디에 의지하고 기대어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붙잡을 것이 있고 머물 곳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분별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붙잡을 것이 있고 머물 곳이 있으면, 바로 샛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크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마음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물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물건은 없

고,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없습니다.

(손을 들어올리며) 다만 이뿐입니다. “지금 아홉시입니다.” 다만 이뿐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로군요.” 다만 이뿐입니다. “밤이 깊으니 더욱 시원합니다.” 다만 이뿐입니다. “주무실 때에 모기 조심하십시오.” 다만 이뿐입니다. “이제 그만 마치죠.” 다만 이뿐입니다. (“딱, 딱, 딱!” 죽비 소리…)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김태완** | 부산 무심선원 원장, 혼산 박흥영 거사의 문하에서 선(禪) 수행,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저서로는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공부〉, 〈선으로 읽는 금강경〉 역서로는 〈임제 100할〉, 〈선문수경〉 등이 있다. 현재 부산 무심선원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선을 지도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